

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일시	2020. 09. 23.(수)
발신	artplantasia@gmail.com	문의	PR 매니저 권순우 (010-2794-7326)
웹하드	https://only.webhard.co.kr/ (ID : apasia2020 , PW : apasia2021) Guest 그룹/ 보도자료		

‘아트 플랜트 아시아(Art Plant Asia) 2020’

팬데믹 시대, 예술 향유의 새로운 방식 제안하며 첫 행사 개최

10월 23일(금)부터 11월 22일(일)까지, 덕수궁 일대에서 펼쳐져

● 한국 근대사 상징하는 정동을 동아시아 예술의 미래 거점으로

- ‘정동1928 아트센터’ 윤훈열 이사장의 비전 담아 사단법인 설립
- 서울 정동과 덕수궁을 무대로 다양한 아시아 예술 엮는 예술제
- ‘주제전시’와 ‘학술 세미나’, 국내외 주요 갤러리가 참여하는 ‘갤러리 데이’ 등 열려

● 주제전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Hare Way Object)>

- 덕수궁 안팎을 가로질러 펼쳐지는 현대미술 전시
- 이우환, 윤형근, 이불, 양혜규 등 한국 대표하는 현대미술작가 한 자리에
- 유망 아시아 작가 포함해 10월 23일(금)부터 11월 22일(일)까지 개최

● 익숙한 전시 관습 허무는 새로운 예술 경험 제안

- ‘거리두기’ 가능한 야외 문화재 활용해 만들어지는 미술 전시
- 스토리텔링 담은 비대면 관람, 소그룹 야간 전시 투어 등 적정 기술과 대안적 착상을 모은 프로그램 선보여
- 답답한 팬데믹 속,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 풀어줄 것으로 기대

사단법인 서울정동동아시아예술제위원회(이사장 윤훈열)가 중구청(청장 서양호)과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Art Plant Asia 2020, 이하 'AP아시아 2020')을 개최한다. 윤훈열 이사장은 지난해 구세군재단 건물에 '정동1928 아트센터'를 설립, 한국 근대사 메카인 정동 일대의 문화 교류 거점화를 추진해 왔다. 'AP아시아 2020'은 이러한 준비의 결실로 생겨난 동아시아 문화예술 생산의 "플랜트"다. 현대미술 전시를 중심으로 국제 학술회와 갤러리 참여 행사를 한 데 모아, 오는 10월 정동 덕수궁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P아시아 2020'은 동아시아를 무대로 예술가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매개의 장을 목표로 삼는 한편, 팬데믹 시대에 가능한 예술의 생산과 유통을 고민한 주제전시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Hare Way Object)>를 덕수궁 궁궐 안팎에서 선보인다. 이승현 총감독과 2명의 큐레이터(윤율리, 장혜정)가 전시팀을 구성하고, 김성희 계원예대 교수가 해외 작가 커미셔너를 맡는다. 박수근과 주호회, 김홍주, 윤형근, 이우환 등 한국 근현대 작가 11인(팀)과 강서경, 김희천, 안정주+전소정, 양혜규, 이불 등 동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19명(팀)을 비롯,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시아 작가 3인(로이스응, 호루이안, 호추니엔)이 참여한다. 특히 덕수궁의 건축과 역사, 아름다운 야외 공간을 활용해 구동희, 오종, 정지현, 최고은 등이 제작하는 커미션 작품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유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AP아시아 2020'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문화재의 이점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이미 사회적으로 익숙한 적정기술과 아이디어를 조합해 게임의 요소를 가미한 비대면 관람, 소그룹 야간 투어 등 "개인화된 전시 관람의 방식"을 기획했다. 김남시(이화여대 교수), 박성광(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 이승현('AP아시아 2020' 총감독), 이정우(경희사이버대 교수)가 발제하는 국내 학술회 세미나와 유쿠이(Yuk Hui, 중국), 고쿠분 고이치로(Koichiro Kokubun, 일본), 모르텐 스펡베리(Mårten Spångberg, 스웨덴)가 참여하는 국제 학술회 세미나는 온라인 진행을 결합해 이루어진다. 소규모 인원을 초대하는 '갤러리 데이'에선 국제갤러리(한국), PKM(한국), 사브리나 암라니(Sabrina Amrani, 스페인), 에드워드 말링(Edouard Malingue Gallery, 중국 상해&홍콩) 등이 각각의 작가를 소개하는 렉처 및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급격히 위축되고 예술 창작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AP아시아 2020'은 익숙한 관습 바깥의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공유에 관한 제안이다.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중구청은 2020년부터 미술지원사업을 강화해가는 중이다. 중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아시아 작가들의 국제교류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면서 중구문화재단 산하 사업을 통해 'AP아시아 2020'과 발을 맞춘다. 중구는 'AP아시아 2020'을 동력으로 정동 일대를 동아시아 미래 문화예술 핵심 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 문화 주체 및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끝>

-
- 붙임: 1. 주제전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 개요
2. 주제전 주요 참여작가 소개
3. 부대프로그램 개요

붙임 1

○ 주제전 <토끼 방향 오브젝트(Hare Way Object)> 개요

— 행사명: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

— 장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덕수궁

— 기간: 2020년 10월 23일(금)~2020년 11월 22일(일)

—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무

(매주 1회 소그룹 야간 전시 투어 프로그램 진행, 추후 일정 공지)

— 입장료: 1,000원(덕수궁 입장료)

— 참여작가

① 한국 동시대 작가(19명/팀)

강서경, 구동희, 김희천, 박광수, 박경률, 박정혜, 슬기와민, 안정주+전소정, 양혜규, 오종, 우한나, 이불, 이우성, 임영주, 정은영, 정지현, 정희승, 차재민, 최고은

② 한국 근현대 작가(11명/팀)

김혜련, 김흥수, 김환기, 김홍주, 남관, 박서보, 박수근과 주호회(최영림, 황유엽, 홍종명, 박창돈), 김창열, 윤형근, 이우환

③ 해외 작가(3명)

로이스응(Royce Ng), 호루이안(Ho Rui An), 호추니엔(Ho Tzu Nyen)

— 총감독: 이승현

— 큐레이터: 윤율리, 장혜정

— 해외 작가 커미셔너: 김성희

— 주최: 서울정동동아시아예술제위원회, 중구청

— 후원 및 협찬: BC카드, 서울특별시, 삼성전자

— 기자간담회: 2020년 09월 28일(월) 오전 11시, '정동1928 아트센터' 컨퍼런스룸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23)

○ 이불



이불, <사이보그 W10(CyborgW10)>, 2006, 알루미늄에 폴리우레탄 패널, 아크릴 코팅 외, 180x60x70(cm)

이불은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역사인식, 유토피아에 관한 인본주의적 탐구 속에 개인적 내러티브를 투영한 작업들로 1980년대 후반부터 현대미술계를 선도하는 한국 대표작가로 자리매김해왔다. 강렬하고 파격적인 그의 작업은 퍼포먼스, 조각, 설치, 회화, 드로잉, 그리고 영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매체로 시각화된다. 뉴욕현대미술관, 뉴뮤지엄, 구겐하임미술관, 무담 록셈부르크, 런던 헤이워드갤러리 등 세계 최정상급 미술 기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2012년 아시아 여성작가 최초로 도쿄 모리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했으며,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에 한국작가로는 유일하게 두 차례 초청되어 (1999, 2019) 동시대 최고 작가로서의 명성을 증명했다. 이불은 1998년 휴고보스상 최종후보,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 2014년 광주비엔날레 눈예술상, 2019년 호암상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의 작품은 삼성 리움미술관, 아트선재센터, 가나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 LA현대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PKM)

○ 안정주+전소정



안정주+전소정, <누드 모델>, 2015, 싱글 채널 비디오, 37분 40초, 《장미로 엮은 이 왕관》, 아뜰리에 에르메스 설치전경.

대중매체나 일상에서 채집한 이미지 및 사운드의 변형과 변주, 반복과 분절을 통해 독자적인 서사 구조를 지닌 무빙이미지를 실험하는 ‘안정주’와 영상, 설치, 출판 등 다양한 매체적 시도를 감각적으로 번역해 현재에 질문을 던지는 ‘전소정’이 결성한 프로젝트 팀. 영상과 음악 등 형식과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도들을 선보이고 있다. 《장미로 엮은 이 왕관》(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5), 《검은 밤, 비디오 나이트》(d/p, 서울, 2018) 등의 단독 전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HIAP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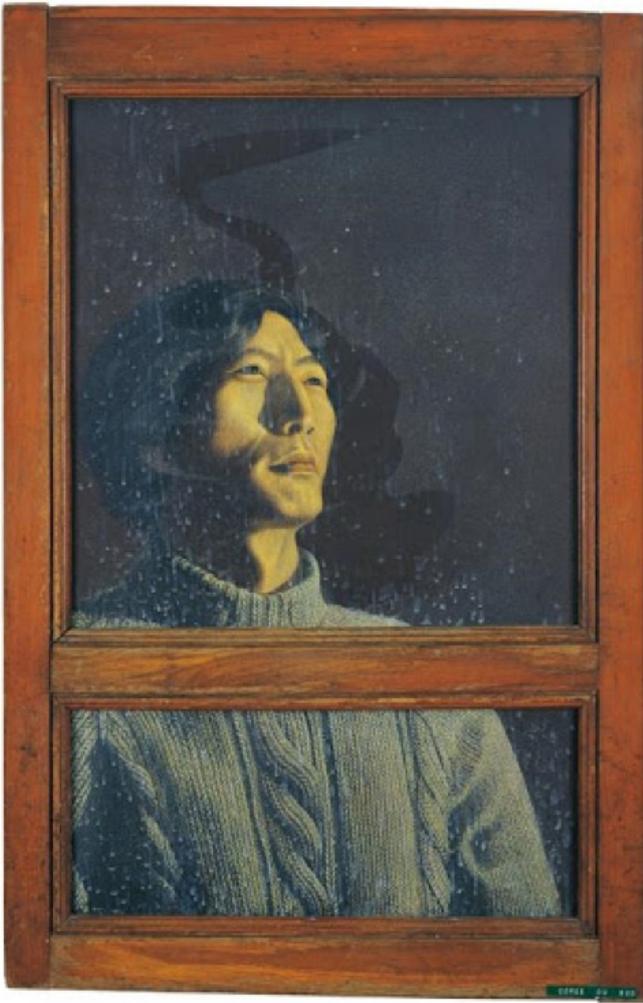
○ 김희천



김희천, <바벨>, 2015, 싱글 채널 비디오, 21분, 스틸컷.

김희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를 졸업했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개인전 《탱크》(아트선재센터, 서울, 2019), 《흙》(두산갤러리, 서울, 2019)을 개최했다. 부산비엔날레(부산, 2020) 광주비엔날레(광주, 2018), 이스탄불비엔날레(이스탄불, 2017), 미디어시티서울(서울, 2016) 같은 비엔날레를 비롯, 국립현대미술관(서울, 2019), ZKM(칼스루에, 2019), MCAD(마닐라, 2019) 등에서 열린 그룹전에 참여했다.

○ 김홍주



김홍주, <무제>, 1979, 나무 위 실크에 유채, 80x55(cm), 출처: K-Auction.

김홍주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모임 ST에서 개념미술을 접하며 1970년대부터 거울, 유리창 등의 오브제에 세밀한 수공으로 유리나 거울에 투영된 인물을 그렸다. 이미지와 사물 사이를 왕래하는 그의 작업은 이후 서구와 전통, 고급과 대중, 담론과 실천을 과감하게 넘나드는 독자적인 형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세밀한 선묘로 화면을 채워나가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더 그레이트 콜렉션'에서의 개인전 《형태가 될 수 없는 형태》(서울, 2020)를 비롯, 국제갤러리(서울, 2015), 아르코미술관(서울, 2009)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4 ID》(갤러리 내일, 서울, 2020), 《Korea Tomorrow 2015》(성곡미술관, 서울, 2015), 《자이트가이스트-시대정신》(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2006년 파라다이스 어워드(Art in Culture, 2006)를, 2005년 6회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박수근과 주호회



박수근, <마을>, 1964, 하드보드에 유채, 15x24.5(cm).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박수근은 1940년 결혼과 함께 평양에서 약 5년간 체류하던 시절, 고구려 벽화에 심취했던 일본인 학예사 오노 타다아키라 주변의 화가 모임인 주호회에 가입해 최영림, 황유엽 등과 함께 활동했다. 해방 후 박수근은 월남하여 창작미협에서 활동 중인 이들과 후배 작가 홍종명, 박창돈, 박항섭 등과 어울린다. 이때 박수근의 화강암 재질 마티에르는 50년대 후반 작가들의 작업에서 황토의 재질감이나 벽화의 느낌으로 다시 등장한다. 미술평론가 이구열은 이 작업들의 공통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 이러한 작품들이 처음으로 함께 전시된다.

○ 호추니엔



호추니엔, <노 맨 II>, 2017,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360분.

호추니엔은 싱가포르의 미디어 및 공연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영상과 그림이 혼합된 작품 《우타마-역사 속의 모든 이름은 바로 나》(2003)는 상파울로비엔날레, 후쿠오카 아시아트리엔날레에 전시되었으며, 장편 데뷔작 《여기 어딘가에》(2009)가 칸영화제에, 《미지의 구름》(2011)이 선댄스영화제에 초청되었다. 그의 공연 작품 《만 마리의 호랑이》는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축제에서 공연되었고,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동남아시아 비평사전 제2권: G-Ghost(유령작가)》가 소개되었다. 2018년 다원예술 프로젝트 《아시아포커스》를 통해 《의문의 라이텍》을 발표했다.

붙임 3

○ 전시 개막식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11:00-12:30

장소: 덕수궁 함녕전 행각 앞마당

비고: 별도의 세레머니 없이 소규모 도슨트 투어 진행

○ 전시 연계 프로그램

① 국내 세미나: 정/동/사/물

— 일시: 2020년 10월 8일(목) 18:00-21:00

— 장소: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

— 발제자: 이승현, 김남시, 박성관, 이정우

— 내용

- 코스모테크닉스로 읽는 전후 한국 미술에서의 실재(real) 추구 / 이승현(APA 2020 총감독)
- 1900년대 이후 미술에서 객체와 사물 / 김남시(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 사/물의 그늘: 티모시 머튼의 다크 에콜로지 / 박성관(대안연구공동체 연구자)
- 디지털 모나돌로지 / 이정우(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② 국제 화상 세미나: 사물학 연대기

— 일시: 2020년 10월 28일(수) 19:00-22:00 (* 일부 일정 변동 가능)

— 장소: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

— 발제자: 이정우(한국), 유쿠이(Yuk Hui, 중국), 고쿠분 고이치로(Koichiro Kokubun, 일본),
모르텐 스폅베리(Mårten Spångberg, 스웨덴)

— 내용

사변적 실재론에 근거한 퍼포먼스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스웨덴의 국제적 안무가 모르텐 스폅베리, 서구의 기술 중심 사유에 지역별 우주론을 접목시킬 것을 주장하며 베를린에서 활동해 온 홍콩 출신 철학자 유쿠이, 들뢰즈 연구자로 최근 중동태에 관한 사유를 진전시키는 일본의 고쿠분 고이치로, 이러한 움직임을 한국적 사유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철학자 이정우를 초청한다.

③ 갤러리 데이

—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 11월 14일(일) 13:00-19:00(※ 일부 일정 변동 가능)

— 장소: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

— 참여 갤러리

- 11월 7일: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 서울 K3 B1에서 진행)
- 11월 13일: PKM, 갤러리현대, 학고재갤러리, 주영갤러리 등
- 11월 14일: 사브리나 암라니(Sabrina Amrani, 스페인), 에드워드 말링(Edouard Malingue Gallery, 중국 상해&홍콩) 등

— 내용

작품과 담론의 생산 못지 않게, 활발한 유통은 미술계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갤러리 데이'는 미술 시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한 'AP아시아 2020'의 비전을 담은 갤러리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행사로 국내외 주요 갤러리와 유망 갤러리, 아시아권 작가들에 집중하는 해외 갤러리 8-10곳을 초대하여 갤러리와 작가를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모든 부대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소규모 인원을 예약제로 초청 또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과 스트리밍을 병행해 진행 예정